

특음악 울려퍼지는 일산 여래사 뮤지컬 전용극장 열다

“지역문화공간 역할 특색” 첫 무대 ‘렌트 & 시카고’ 공연

지난 3일 통도사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 지하 1층에는 오후 내내 특음악이 울려 퍼졌다. 바로 이곳에 들어선 소극장 개관 기념 공연 때문이다. 지난 해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가 국내에 초연해 호응을 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 & 시카고’의 명장면만을 모은 ‘뮤지컬 렌트 & 시카고’가 이날 무대에 올랐다. 인순이 남경주 최정원 허준호 등 지난 해 공연에 참가했던 유명 배우들이 모두 출연했다.

하연 관객들은 열정적인 춤과 노래가 이어지자 이내 긴장을 풀고 장단에 맞춰 손뼉을 쳤다. 얼마 전 일산으로 이사 왔다는 서종욱(30)씨는 “서울에서만 공연했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그것도 집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즐거워했다.

사찰은 이제 대형 요람만이 아니다.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음악회와 전시회, 각종 체험행사 등으로 문화 포교에 나서는 사찰이 늘



◇작년 11월 KBS를 공연 모습.

티베트 음악가 나왕케축 그라미상 뉴에이지 부문 후보

올 7월 한국공연

티베트의 전통 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 나왕 케축이 올 여름 무대와 앨범으로 한국을 찾는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왕 케축은 오는 7월초 한국을 다시 방문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4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지난 해 11월 공연은 단 1회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다.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나왕 케축의 바

람을 들은 인천불교청소년연합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라미상 뉴 에이지 부문에 3 번이나 후보로 올랐던 그의 앨범은 공연에 앞서 6월경 먼저 만나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낸 7개 중 그가 직접 제작한 3개의 앨범에서 명곡만을 추린다. 작년에 나온 앨범 ‘저 먼 곳 In A Distant Place’이 올해 그라미상 뉴 에이지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권형진 기자



◇3~4일 개관 기념 공연을 가진 뮤지컬전용소극장 여래사 지하(층) 내부. 개관기념으로 무대에 오른 ‘뮤지컬 렌트 & 시카고’의 한 장면(왼쪽).

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단계. 3일 신도시 포교당인 일산 여래사에 들어선 상설 소극장 ‘신시씨어터’는 문화 포교가 실험 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관 당시부터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겠다는 꿈을 꿨었던 여래사는 신시씨어터 개관으로 그 본격적인 답을 올린 셈이다.

신시씨어터는 일년 내내 뮤지컬만 공연하는 뮤지컬 전용극장. 작년 7월 서울 정동에 문을 연 ‘난타’ 전용 극장에 이어 뮤지컬 상설 극장으로도 두 번째다. 220석 규모의 소극장이지만

무대는 높이가 75m 너비 11m의 중국 장 규모다. 대형극장용 좌석에 최신 영상 장비와 조명 음향 장치를 갖췄다. 절 지하의 빈 공간을 이용해 소극장이 들어선 게 아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일산 시민들을 위해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던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봉사 주지 정우 스님이 일산에 포교당을 내면서 처음부터 지하를 소극장으로 설계했다.

운영은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가 맡는다. 신시뮤지컬컴퍼니의 작품 발

표정으로 쓰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연극과 가족극 위주로 대관도 할 예정이다. 3월 어린이 뮤지컬과 4월 극단 신시의 새로운 코미디 뮤지컬인 ‘데임스 앤 씨’ 공연 계획이 잡혀 있다. 박명성 대표는 “가족극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가족이 함께 다양한 공연예술향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면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대관한다는 생각이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s.com)

문화재로 감상하는 뱀

중앙박물관, 28일까지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형상화되었던 뱀 관련 미술품을 한 자리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뱀과 해를 맞아 ‘복희여와도’ 등 뱀 관련 문화재 8점을 28일까지 전시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뱀의 대표적인 모습은 십이지(十二支)의 하나로서 다. 하지만 고대 벽화 속에 등장하는 ‘복희 여와’ 일신 ‘월신’ ‘현무’

등에서 뱀은 천지개벽과 음양조화를 상징하는 창조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신라 토우 속에서는 인간의 소박한 이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고구려, 신라, 중앙아시아의 뱀 관련 미술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윤희 학예연구사는 “이번에 전시되는 ‘복희여와도’는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뱀 관련 미술품과 좋은 비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복희여와도(머에 채색, 188.5×93.2cm, 중앙아시아).

문화소식

김규동 시인 ‘詩刻展’

원로 시인 김규동(한국문학작가회의 고문·76세)은 1월30일부터 4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시와 목각을 결합한 ‘시각시체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102점이 나왔다. 자신의 시, 두보·김삿갓·정약용 같은 옛 사람들의 시, 한용운<사진>·신채호·김소월 등의 작품, 보들레르 등 외국 시인들의 시와 문장을 목판에 새겼다.



◇만해 한용운(64×66cm).

봉축앨범 동참자 모집

좋은 벗 풍경소리가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작하는 신세대 가요풍의 찬불가 ‘봉축의 노래’ 기념앨범에 동참할 끼 있는 젊은이 ‘꾼’ (건달바)를 모집한다.

작사, 작곡, 가수, 랩퍼, 댄서로 나눠 모집하며 작사와 작곡 부문은 작품 및 음악테이프를 제출하면 된다. 동학생 이상 25세까지만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28일까지. 02717-6985

새천년의 발원 - 손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한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만월등



안국일 제조사 (특이 제122168호) 합격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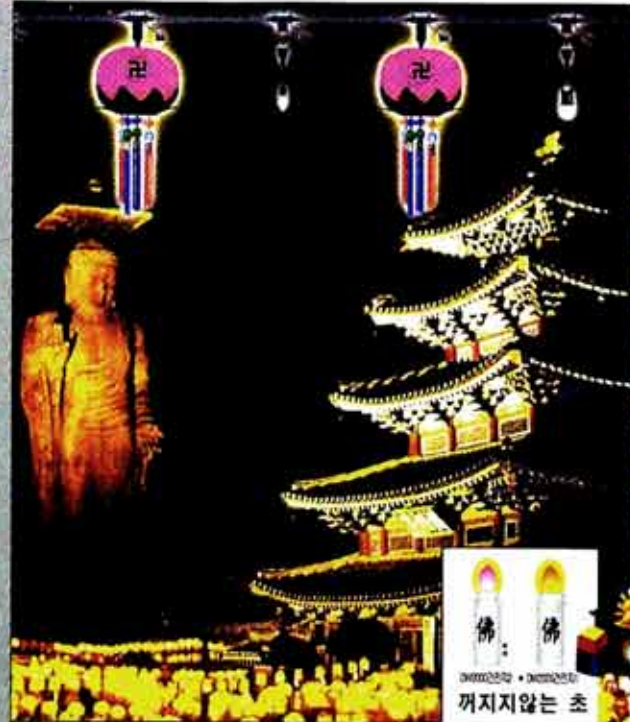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격

-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불제 건전지용 초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꺼지지않는 초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 ▶ 불제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 (031) 986-0277~8